

“부동산 민주당보다 엄격” 강조하더니…한발짝 물러선 이준석

당사자 소명·윤석열 갈등·20대 민심 고려 12명 중 6명만 쳐내기로 해 ‘기대 이하’ 비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의원들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처벌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12명 중 6명만 탈당 결정을 해 한발짝 물러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각자 대응 방향을 두고 부싱하는 모습이다.

25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애초 12명에게 모두 탈당을 요구하는 강수를 고려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전원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자고 했으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소명이 가능한 사례는 빼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에서 탈당 요구 대상은 애초 이철규, 최춘식 의원이 빠진 4명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소속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캠프 소속인 한무경, 정찬민 의원이 제명과 탈당 대상에 오른 상황

에서 이 의원까지 포함되면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갈등이 다시금 부각될 수 있었던 탓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 의원들의 범법 위반 의혹이 ‘이대녀’ (20대 여성) 민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탈당 대상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 의원들의 결혼한 딸이 최근 사들인 아파트가 편법 증여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윤석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 대응 방식을 택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제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걸었다. 나머지 의원 10명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일부는 부동산 의혹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권익위나 당 지도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병길 송석준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물론이고, 제명 제재를 받은 한무경 의원이나 ‘탈당 요구’를 받은 강기운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의원도 비슷하다. 정찬민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정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직 사퇴 선언…대선 경선도 포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다.

윤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의 입 ‘주1회 간담회’ 맞붙…대세 굳히기 여론전

이낙연 캠프 공세에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측 ‘열린캠프’가 25일 첫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부터 ‘주 1회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대(對) 이재명 공세’에 나선 이낙연 캠프를 겨냥해 이재명 캠프도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도 차원에서 캠프 방향과 정책에 관련한 주간 브리핑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세론”이 진행 중이다. 조직 힘보다 오래 뿌리내린 바닥 민심이 비바람에도 단단해진다”고 말하며 대의원 등 전통적 조직에 강점을 두는 이낙연 캠프를 예들려 견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순회 경선이 다가오자 그동안 중립·관망 상태에 있던 분들이 이재명 경기지사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낀다”며 “본선까지 활화산처럼 (지지세 확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참신한 인재와 전문가들도 계속 영입할 계획이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12명 ‘비전 발표회’서 첫 격돌

출마 이유·국정운영 비전 소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격돌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앞서 당내 갈등의 소화선이 됐던 토론회 대신 마련된 이번 정전 발표 자리에서 12명의 주자는 각자 7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출마 이유와 국정 운영 비전을 소개했다. 상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불꽃 튀는 토론전에 대비해 준비운동을 하는 자리가 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1% 승부로, 중도중과 수도권, 청년층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할 수 없다”며 “제가 그 지지층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후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 정부에 빼앗긴 꿈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노의 결집만으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과거 청산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차별화했다. 하태경 의원은 “저성과자, 부적격자의 해고를 허용하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하는 적극적 복지를 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360만 개에서 800만 개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 | |
|---|--|
|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40평(전용) 2억3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우실 리모델링함,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
|---|--|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